Moody'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등급 “Aa3” 부여

채원영 연구원

■ Moody's는 2012년 8월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“ A1” 에서 “ Aa3” 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"안정적"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Moody's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로 최고의 등급과 전망임.

- Moody's는 1) 양호한 재정건전성, 2) 경제 활력 및 경쟁력, 3)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, 4) 북한문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 사유로 제시하였음.
- 또한, 등급의 추가상향을 위해 1)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 안정성 제고, 2)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 감소, 3) 경제 펀더멘털상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전망 유지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.

■ 금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
- 대외 신인도 제고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  -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용등급 1단계 상향 시 연간 이자비용 절감규모는 연간 4억 달러(약 4,540억 원)[1].
  - 은행의 해외채권발행과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, 투자 개발형[2] 프로젝트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.
  - 다만, 보험회사는 자금조달 비용은 낮아질 전망이나 채권가격 상승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(Moody's, 기획재정부, 8/27 외)

1) 2012년 6월 말 기준 외화표시채무 약 2,700억 달러(외화증권 발행, 차입금 등)에 가산금리 150bp 인하(IB등 시장관계자 추산치)를 곱한 금액임.
2) 해외건설 시 직접 부지를 매입해 시공한 뒤 분양까지 일괄 시행함. 국가신용등급 상향 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질 경우 수익성이 높아짐.